

# 원희룡 장관, “이기적 집단행위로 교육현장 피해 다시 없도록” - 12일 부산시 명문초등학교 건립 현장 찾아 학부모 고충 청취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(목)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.
  -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,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, 운송노조 파업,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.
- 원 장관은 “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.5km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하니,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은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” 고 말했다.
  - 이어, “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면서, 무엇보다,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- 또한, 원 장관은 “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것” 이라면서,
  - “현장 공사가 늦어지면 시공사들이 가장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교육청이나,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, LH 등 공공발주기관에서 앞장서서 불법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, 법의 경계선을 타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바로잡을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-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“이미 늦어진 공사지만 나중에 모든 학생들이 쓰도록 좋은 품질의 학교건물을 지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” 을 당부하면서,
- “앞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속칭 ‘떼법’ , ‘어거지’ 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없어져야 하는 만큼,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” 이라고 덧붙였다.

2023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